영남의대학술지 제5권 제2호
The Yeungnam Univ. Med. J.
Vol. 5, No. 2, December. 1988.

다면적 인성검사에 의한 대학신입생의 정신건강평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이중훈 · 박병탁 · 이종범 · 정성덕

서 론

대학생은 연령적으로 사춘기에서 성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에 있으므로 아직 성년이 되기 위한 과정중이라 불안정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시기이다. 오늘날과 같은 한국실정이 대학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새로운 요청은 이들 대학생들에게 대학내에서의 학업수행과 더불어 진로에 대한 전망, 사회에 대한 기대감, 개인적 적응 등의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신입생은 새로운 대학생활에의 기대감, 경제적 부담, 사회적 가치관의 확립, 선택한 학과에 대한 전망 및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 등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제기된다. 이런 이유로 대학신입생이 대학생활 적응을 시작하기전 이들의 정신건강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학창생활을 지도하거나 새로운 대학사회에 부적응으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정신의학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풀어 나가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우리 나라에서도 대학생의 문제를 연구한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다 (김인자, 황응연, 1974,[1], 김호권, 1983,[2] 박경자, 1983,[3] 박병탁, 이중훈, 정성덕, 1986,[4], 서강대학교 생활상담실, 1985,[5] 1986,[6],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85,[7], 이남기, 김남순, 1984,[8] 정양은, 1979,[9], 1981,[10] 홍대식, 1979[11]).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집단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들 논문 가운데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와 정신건강 그리고 적응과 부적응문제 파악 및 상담에 대한 논문도 다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신입생에게 이들이 대학생활을 시작하기 전단계에 놓여 있을 때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정신적으로 건강한 학생과 불건강한 학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불건강의 변인을 여러가지 사회정신의학적 견지에서 평가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88년 1월 15일부터 동년 2월 15일에 걸쳐 영남대학교 신입생중 본 조사에 응답한 3,79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그 중 남학생 2,586(81.4%), 여학생 1,206명(82.7%)이었다. 일차조사에 응답한 3,792명(81.8%) 중 Zung의 자가평가 불안척도[12]와 자가평가 우울척도[13]의 성적이 어느 한쪽이든 50점이상인 자와 Derogatis등이 고안한 간이진단검사중 정신증척도(symptom check list-90중 psychoticism scale : 이하 정신증 척도로 약함)[14]의 성적이 20점 이상인 자 등의 경우 어느 한가지가 상위에 해당하는 신입생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총 392명(10.3%)으로 이들 중 이차조사에 응답한 신입생은 156명(39.8%)이었으며 그 중 남대

생은 109명(69.9%), 여대생은 47명(30.1%)이었다(Table. 2).

이들의 정신건강상태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다면적 인성검사(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 MMPI로 약함)[15]를 사용하였다. 이들 척도는 모두 국내에서 번안되어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바 있다. 다면적 인성검사는 1. 심기증척도(hypochondriasis scale,HS), 2. 우울증척도(depression scale, D), 3. 히스테리척도(hysteria scale, Hy), 4. 정신병질척도(psychopathic diviate, pd), 5. 남향성－여향성척도(masculinity-feminity scale, Mf), 6. 편집증척도(paranoia scale, Pa), 7. 정신쇠약증척도(psychasthenia scale, Pt), 8. 정신분열증척도(schizophrenia scale, Sc), 9. 경조증척도(hypomania scale, Ma), 10. 사회적내향성척도

Table 1. Distribution of respondents in the college freshmen

College	Naof attended students				Respondents	
	Male	Female	Both	Male(%)	Female(%)	Both(%)
Liberal arts	255	275	500	204(90.7)	240(87.3)	444(88.9)
Science	189	170	359	171(90.5)	137(80.6)	308(85.8)
Engineering	1011	89	1100	827(81.8)	62(69.7)	889(80.8)
Law & Political	237	13	250	155(65.4)	11(84.6)	166(66.4)
Commerce & Economics	372	18	390	319(85.8)	18(100.)	337(86.4)
Medicine	70	10	80	16(22.9)	3(30.0)	19(23.8)
Pharmacy	8	62	70	6(75.0)	10(16.1)	16(22.9)
Agriculture	210	118	328	182(86.7)	105(89.0)	287(87.5)
Home economics	1	209	210	1(100)	182(87.1)	183(87.1)
Education	112	148	260	106(94.6)	135(91.2)	241(92.7)
Fine arts	888	82	170	83(94.3)	78(95.1)	161(94.7)
Musics	31	129	160	30(96.8)	123(95.3)	153(95.6)
Evening Progarms	623	136	759	486(78.0)	102(75.0)	588(77.5)
Total	3177	1459	4636	2586(81.4)	1206(82.7)	3792(81.8)

Table 2. Distribution and participating ratio in the college freshmen

subject / college	Total subject			Subject of second test			Participating ratio
	Male	Female	Both	Male	Female	Both	
Liberal arts	34	15	49	15	6	21	42.8
Science	16	14	30	7	7	14	46.6
Engineering	92	11	103	36	4	40	38.8
Law & Political	19		19	7		7	36.3
Commerce & Economics	35	4	39	14	1	15	38.4
Medicine	10		10	4		4	40.4
Agriculture	11	5	16	4	2	6	37.5
Home economics	8	15	15		7	7	46.6
Education	21	13	21	2	6	8	38.0
Fine arts	21	8	29	6	2	8	27.5
Musics	7	12	19	2	6	8	42.1
Evening Programs	29	13	42	12	6	18	42.8
Total	208	110	392	109	47	156	39.7

(social introversion scale, Si)등의 10개 임상증상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성과 허구성도 측정되는 설문지 검사법이다. 이들 척도를 각 단과대학별로 훈련된 조교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MMPI의 결과는 Lachar의 분류법[16]을 이용하여 증세가 심한 수준에 해당되는 신입생을 최소수 집단 분류하였다. 이들이 다면적 인성검사 실시에 응답한 156명을 가지고 사회정신의학적 요인들에 대한 경향을 보기 위해서 첫째 소속대학, 연령, 둘째 자기집 가족 분위기, 부모상호간의 친숙정도, 나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 정도, 나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 정도별을 포함시켰다. 셋째 건강상태, 정신과 입원한 경험, 최근 3년동안의 신체적 질환을 경험한 유무 등을 포함시켰다. 네째, 종교 및 경제적 상태를 보았다.

성　적

1) 총점 및 경향평가

MMPI의 총점은(Fig. 1)과 같이 임상척도의 프로파일 코드(profile code)는 다음과 같다.

MMPI profile code : 1592 / 407863 :

다면적 인성검사로 측정한 경향분석의 결과는 신경증적 경향 24명(15.4%), 정신병적 경향 20명(12.8%), 행동장애경향 7명(4.5%)등으로 신경증적 경향은 심기증척도, 히스테리척도 등 두 척도와 경우에 따라서 우울증척도, 정신쇠약증척도, 경조

Fig. 1. Group mean MMPI profiles of male and female college freshman (N=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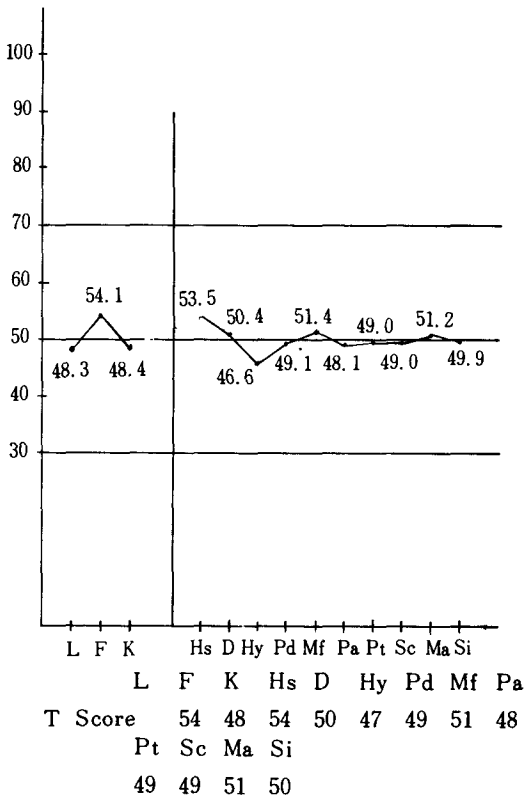


Fig. 2-1. Mean MMPI profiles of neurotic trends (N=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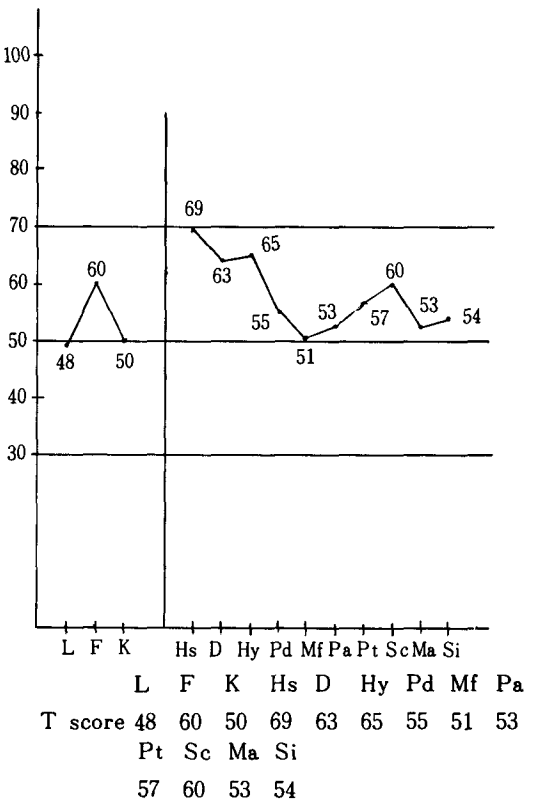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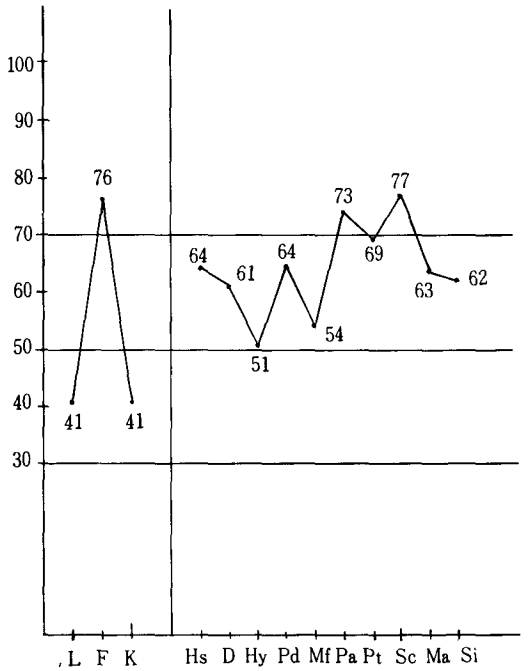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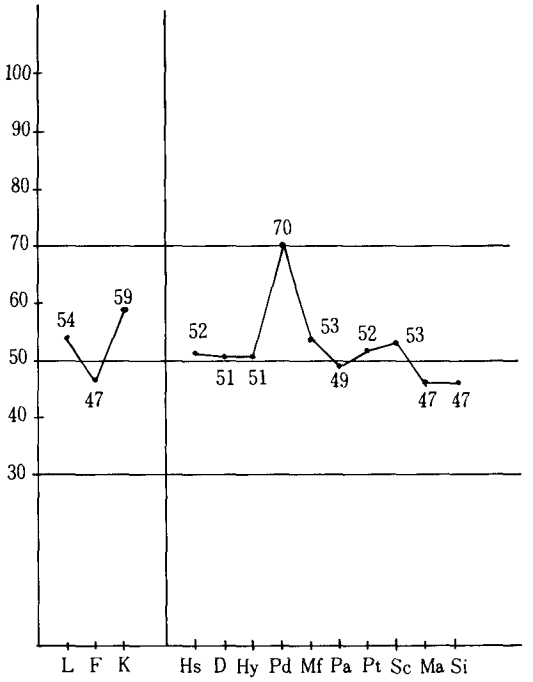


Fig. 2-2. Group Mean MMPI profiles of psychotic trends (N=20).



	L	F	K	Hs	D	Hy	Pd	Mf	Pa
T score	41	76	41	64	61	51	64	54	73
	Pt	Sc	Ma	Si					
	69	77	63	62					

Fig. 2-3. Group Mean MMPI profiles of behavior desorder trends (N=7).



	L	F	K	Hs	D	Hy	Pd	Mf	Pa
T score	54	47	59	52	51	51	70	53	49
	Pt	Sc	Ma	Si					
	52	53	47	47					

증척도등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신병적 경향은 편집증척도, 정신쇠약증척도, 정신분열증척도, 경조증척도등 네 척도가 높았으며, 행동장애에 해당되는 반사회적 정신병질경향은 정신병질척도, 남향성-여향성 흥미척도, 경조증척도등의 임상척도가 특징적으로 높은 경향이었다 (Fig. 2-1~Fig. 2-3).

이들 중 세부진단을 위하여 얻어진 최소수의 분류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정서장애 8명, 불안장애 6명, 정신분열증 9명, 인격장애 3명으로 총 26명이었다. 이 결과는 총 신입생 중 0.7%를 차지하였다.

2) 사회정신의학적 요인평가

연령은 임상척도별 특이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3-1).

소속대학별은 각 대학이 대체로 임상척도가 50점 수준에 있으나 문과대학에서 정신분열증척도가 63점, 가정대학에서 경조증척도가 66점으로 다른 임상척도에 비해 상승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Table. 3-1).

자기집 가족분위기에서 불만일 경우 19명(12.1%)으로 심기증척도 64점, 편집증척도 65점, 정신분열증척도 67점으로 다른 임상척도에 비해 상승되어 있다 (Table. 3-2).

부모 상호간의 친숙정도에서 불만인 경우 18명(11.5%)으로 심기증척도 61점, 정신분열증척도 63점 등으로 다른 척도에 비해 높았다 (Table. 3-2).

나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정도에서 심각한 경우 19명(12.1%)으로 편집증척도 59점, 정신분열증척도

Table 3-1. Mean score of MMPI scale in the college freshmen by psychosocial factors

Psychosocial factors \ MMPI scale		L	F	K	1	2	3	4	5	6	7	8	9	0
Age	18	49	56	49	56	53	50	52	52	53	53	56	55	51
	19	49	54	48	52	51	49	52	50	52	52	54	55	51
	20	52	50	54	54	51	51	54	52	49	45	49	52	50
College	Liberal arts	48	59	48	57	54	54	54	55	55	58	63	55	52
	Science	51	63	47	57	56	52	54	53	56	57	57	54	54
	Engineering	48	52	49	56	52	48	50	49	51	51	53	54	51
	Law & Political	49	54	52	58	51	49	56	55	56	57	58	59	53
	Commerce & Economics	45	55	44	55	51	49	52	49	51	48	55	52	51
	Agriculture	59	53	55	54	48	47	51	51	56	50	51	56	47
	Home economics	41	51	46	53	49	48	51	50	50	51	55	66	50
	Education	50	49	52	56	55	53	51	45	48	51	52	50	52
	Fine arts & Musics	47	53	51	56	49	49	54	52	47	49	50	54	46
	Evening Programs	56	48	55	52	49	49	52	51	47	49	49	49	50

Table 3-2. Mean score of MMPI scale in the college freshmen by psychosocial factors

psychosocial factors \ MMPI scale	L	F	K	1	2	3	4	5	6	7	8	9	10
Family Atomosphere (unsatisfy)	45	68	42	64	58	59	59	55	65	60	67	57	55
Marital intimacy of parents (unsatify)	44	64	45	61	55	56	57	52	57	58	63	58	52
conflicts between father and I (serious)	47	61	44	58	55	50	56	50	59	49	62	57	54
conflicts between mother and I (serious)	38	65	44	57	49	54	63	52	60	57	73	71	53

Table 3-3. Mean score of MMPI scale in the college freshmen by psychosocial factors

psychosocial factors \ MMPI scale	L	F	K	1	2	3	4	5	6	7	8	9	0
Physical condition (weak)	49	60	45	65	62	61	54	57	55	60	60	55	57
Hospitalization (yes)	62	48	55	65	57	54	53	45	41	48	55	60	49
Physical illness (yes)	46	61	46	59	54	55	59	51	58	58	60	54	53

Table 3-4. Mean score of MMPI scale in the college freshmen by phychoscial factors

psychosocial factors \ MMPI scale		L	F	K	1	2	3	4	5	6	7	8	9	0
Religion	Buddist	49	53	49	57	54	51	56	52	51	52	51	52	53
	Protestant	51	56	51	52	51	48	54	51	54	54	56	55	50
	Catholic	48	48	49	60	43	52	51	52	49	53	50	56	50
	No	47	53	48	56	52	53	51	51	52	51	54	55	51
economic status		50	54	50	58	54	52	54	57	55	54	57	52	52

62점 등으로 다른 척도에 비해 높았다 (Table. 3-2).

나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정도에서 심각한 경우 4명(2.5%)으로 정신병질 및 반사회적 이상성격척도 63점, 편집증척도 60점, 정신분열증척도 73점, 경조증척도 71점 등으로 다른 임상척도에 비해 높았다 (Table. 3-2).

건강상태에서 허약일 경우 10명(6.4%)으로 심기증척도 65점, 우울증척도 62점, 히스테리척도 61점, 정신쇠약증척도 60점, 정신분열증척도 60점으로 다른 임상척도에 비해 상승되어 있다 (Table. 3-3).

정신과 입원한 경험에서 입원경험 있다의 경우 2명(1.2%)으로 심기증척도 65점, 경조증척도 60점 등으로 다른 임상척도에 비해 높았다 (Table. 3-3).

최근 3년동안의 신체적 질환을 경험한 경우가 있다는 27명(17.3%)으로 심기증척도 59점, 정신병질 및 반사회적 이상성격척도 59점, 정신분열증척도 60점등으로 다른 임상척도에 비해 상승되어 있다 (Table. 3-3).

종교별 분포는 천주교군에서 심기증척도가 60점, 무교군에서 히스테리척도가 63점으로 다른 임상척도에 비해 상승되어 있다 (Table. 3-4).

경제적 상태에서 하위수준일 경우 20명(12.8%)으로 임상척도별 특이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3-4).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에서 신경증적 경향 24명(15.4%), 정신병적경향 20명(12.8%), 행동장애경향 7명(4.5%) 등의 총 51명의 사례수에서 사회정신의학적 요인을 재검토하여 그 빈도수를 보았다.

연령은 19세 24명(47.0%), 종교는 무교 23명(45.9%)와 기독교 16명(31.3%) 등에서 빈도수가 많았다.

자기집 가족분위기에 대한 태도는 보통 30명(58.8%), 부모상호간의 친숙정도에 대한 태도는 보통 29명(56.9%), 나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정도에 대한 태도는 보통 26명(60%), 나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정도에 대한 태도는 보통 22명(43.1%)등에서 빈도수가 많았다.

건강상태에 대한 요인은 건강상태가 보통 28명(55%), 정신과 입원한 경험은 없다가 50명(98.0%), 최근 3년동안의 신체적 질환은 없다가 37명(72.5%)등에서 빈도수가 많았다.

종교는 무교 23명(45.0%), 기독교 16명(31.3%)등에서 빈도수가 많았고 경제상태는 중 정도 45명(88.2%)에서 빈도수가 많았다.

고 찰

1987년도에 세부조사 대상자인 84명(25.8%)이 2차 조사에 응했는데, 1988년도 본 조사대상은 156명(39.8%)으로 아직도 과반수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정신건강을 평가하려는 연구에 호응도가 극히 저조한 사회적 배경임을 한 번 더 확인 해 준 결과로 본다.

총점 평가는 다면적 인성평가기준상 정상수준에 해당된다. 1987년도에 신입생을 대상으로 평가한 성적도 이와 유사한 성적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본 검사는 총 평균의 의미보다는 개개인의 성적을 중시하여 특징적인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는 것이라고 제시해준다.

이들 중 정신건강상태를 재검토 하기 위하여 다면적 인성검사를 본 결과 정신분열증경향 20명(12.8%), 신경증적경향 24명(15.4%), 행동장애경향 7명(4.5%)으로 총 51명이다. 이는 전체 사례수의 약 1.4%이다. 전체 신입생중 약 1.4%가 정신적으로 균형을 잃고 있어 치료에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본다. 이들은 입시라는 목전의 목표달성에 과잉치중 했다는 점과 아직도 대학생으로서 사회참여를 시작하기 전단계에 놓여있는 신입생이기 때문에 증세가 더욱 억압되어 치료대상으로 될 만큼 증상화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본다.

정신분열증은 주로 사고의 장애이고 정동장애는 감정의 장애인데 이들이 구체화되기 전 잠복기에는 성격상의 문제나 행동의 부조화로 드러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불안이나 우울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신체적으로 증상화 되기도 한다. 본 조사결과 세부진단이 정서 장애 8명, 불안장애 6명, 정신분열증 9명, 인격장애 3명으로 26명은 총 신입생의 0.7%로 잠복기 상태에서 증상화되는 과정임을 시사해 준다. 이런 결과는 일반인구중 정신적인 불건강으로 입원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0.5~1%의 수준에 해당되는 결과이다. 한국대학생 가운데 정신병적 불균형으로 입원하는 수를 연구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청소년 및 성인중 정신분열증과 정동장애의 발병율이 0.2%로 보고된 바 있다.[19]

이상과 같이 본 심리검사로 몇 가지 정신병적경향을 분석한 결과 세부진단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정신사회적 배경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신입생의 연령과 소속대학별은 정신건강에 작용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집 가족분위기는 불만이라고 평가한 학생은 편집증척도, 심기증척도, 정신쇠약증척도 순으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부모상호간의 친숙정도에서 불만으로 평가한 학생은 정신분열증척도, 심기증척도등이 다소 높았고, 나와 아버지사이의 갈등정도에서 심각한 학생은 정신분열증척도가 단독으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나와 어머니사이의 갈등정도에서 심각한 학생은 정신분열증척도, 경조증척도, 편집증척도의 순으로 높은 순위를 보였는데 정신병적경향에 해당되는 성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가족분위기중 부모상호간의 친숙정도는 아버지와 갈등으로 인한 성적은 정신분열증척도가 공통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어머니와 갈등이 심각할 때는 정신분열증척도를 위시하여 경조증척도, 편집증척도, 정신병질 및 반사회적 이상성격척도등이 동시에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정신병적으로 발전되기 전단계에 놓인 신입생은 증상이 잠복기에 놓여있다는 특징중 정신병질 및 반사회적 이상성격척도나 정신분열증척도 뿐만 아니라 경조증척도 혹은 편집증척도등이 구체화되어 정신병적 문제가 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Lidz, T(1973)[20]와 Arieti, S(1974)[21]등은 정신분열병환자의 아버지는 지배적인 어머니와는 달리 약하고 수동적이며 무관심하여 가족중 어머니가 과격하게 자녀를 다룰 때 자녀가 정신병적으로 된다는 학설과 상응되는 결과이다.

경제적인 수준은 월 잡비 만원 이하인 경우나 오만원 이상인 경우에 본 결과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것은 대학신입생은 피보호자이고 용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돈에 따른 성적은 유의미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노인에서 용돈사용을 적게 쓰고 있는 사람이 우울한 경향[22]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종교에 따른 성적을 볼 때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 따른 결과는 비슷한 성적을 보였고 단지 무교일 때 히스테리척도가 비교적 높았을 뿐이다. 종교에 따른 다면적 인성검사성적은 유의하지 않았는데 구미에서는 천주교 신자중에 정신분열증 발병율이 높고 개신교는 정서장애가 높다고 하는 경향과 무관하나 이 두 종교가 전통 문화로 된 구미사회는 한국사회와 다르기때문에 이런 종교에 따른 성적의 차이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본다.

건상상태는 허약한 경우는 심기증척도, 우울증척도, 히스테리척도, 정신쇠약증척도, 정신분열증척도의 점수가 다소 높았고, 신체적 질환을 겪은 학생에서도 심기증척도, 정신분열증척도가 높았고,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경우의 학생에서도 심기증척도, 경조증척도등이 다소 높았다. 건강과 관계된 성적은 심기증척도가 공통으로 높았다. 이는 신체적으로 불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건강을 심려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라고 본다.

본 연구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향후 개별적인 추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요 약

1988년 1월부터 동년 2월까지 영남대학교 신입생중 본 조사에 응한 3792명(남학생 : 2586명, 여학생 : 1206명)을 대상으로 Zung의 자가평가 불안척도와 자가평가 우울척도, Derogatis등이 고안한 SCL-R중 정신증척도등의 고득점자 392명(10.

3%)에서 2차 조사에 응답한 신입생은 156명(69.9%), 여대생은 47명(30.1%)이었다. 이들에게 실시한 MMPI의 결과는 Lachar의 분류법을 이용하였다.

1) MMPI 결과 신경증적경향 24명(15.4%), 정신병적경향 20명(12.8%), 행동장애경향 7명(4.5%)으로 이는 전체 사례수의 약 1.4%이었다.

2) MMPI의 세부조사 결과 정서장애 8명, 불안장애 6명, 정신분열증 9명, 인격장애 3명 등으로 이들 26명은 총 신입생의 0.7%이었다.

3) 사회정신의학적 요인분석에서 자기집 가족 분위기에서 불만인 경우, 부모상호간의 친숙정도에서 불만인 경우, 나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정도에서 심각한 경우, 나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정도에서 심각한 경우 등에서 공통적으로 정신분열증척도가 높았다.

4) 건강상태가 허약할 경우, 정신과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최근 3년동안의 신체적 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서 건강과 관계된 성적은 심기증척도가 공통적으로 높았다.

참 고 문 헌

1. 김인자, 황응연 : 한국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서울, 서강대학교 사회문제연구소, 1974.
2. 김호권 : 영남대학교 82년도 신입생의 개인적 문제의 분석, 학생연구, 14 : 1 : 57－67, 1983.
3. 박경자 : 집단 심리검사 결과의 분석과 그 활용 － 효성여대 1, 2학년을 중심으로, 생활지도, 효성여자대학교, 1 : 109－128, 1983.
4. 박병탁, 이중훈, 정성덕 : 영남대학교 신입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 불안 및 우울평가, 학생연구, 영남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17 : 1 : 43－59, 1986.
5. 서강대학교 생활상담실 : 1985학년도 신입생의 정신문제 성향분석, 인간이해, 서강대학교, 7 : 90－104, 1985.
6. 서강대학교 생활상담실 : 1986학년도 신입생의 정신문제 성향분석, 인간이해, 서강대학교, 8 : 92－107, 1986.
7. 성균관대학교 학생지도 연구소 : 신입생 심리검사, 학생지도연구, 성균관대학교, 6 : 113－125, 1985.
8. 이남기, 김남순 : 대학생의 성격특성 진단 및 분석 － 1982, 1983, 1984년도 신입생집단의 비교, 학생생활연구소보, 경상대학교, 10 : 17－32, 1984.
9. 정양은 : MMPI 이상프로파일에 미치는 제요인, 학생연구, 서울대학교, 16 : 1 : 61－86, 1979.
10. 정양은 : 1980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특성. 학생연구, 서울대학교, 17 : 1 : 1－55, 1981.
11. 홍대식 : 1979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특성. 학생연구, 서울대학교, 16 : 1 : 1－60, 1979.
12. Zung, W. W. K. : A Rating Instrument for Anxiety Disorders. Psychosomatics, 12 : 371-379, 1971.
13. Zung, W. W. K. :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 Gen. Psychiat., 12 : 63-70, 1965.
14. Derogatis, L. R., Lipman, R. S., and L. Covi, L. : SCL-90 : an Outpatient Psychiatric Rating Scale-Preliminary Report. Psychopharma Cology, Bulletin, 9 : 13, 27, 1973.
15. 정범모, 이정균, 진위교 : MMPI 다면적 인성검사 검사법 요강, 코리안 테스팅 센타, 서울, 1968.
16. Lachar, D. : The MMPI : Clinical Assessment and Automated Interpretation,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California, 1984.
17. 윤욱, 김진성, 권복순, 이중훈, 정성덕 : 정서불안정 신입생에 대한 사회정신의학적 요인평가, 영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연구, 18 : 1 : 35－37, 1987.
18.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

orders(DSM-Ⅲ). 3rd e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 D. C., p. 187-198, 1980.

19. 최문식 : 농촌지역의 주요 정신질환자의 면학적 조사, 신경정신의학, 18 : 1 : 15—21, 1979.
20. Lidz, T. : The origin and treatment of schizophrenic disorders, Basic Books, New York, 1973.
21. Arieti, S. : Interpretation of schizophrenia, 2nd ed., Basic Books, New York, 1974.
22. 박병탁, 김진성, 박형배, 권복순, 이중훈, 이종범, 정성덕 : 양로원 재원노인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우울증을 중심으로), 영남의대학술지, 3 : 1 : 121—130, 1986.

— Abstract —

A Study on MMPI in College Freshmen

Jung Hoon Lee, Byung Tak Park, Jong Bum Lee, and Seung Douk Cheung

Depar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Taegu, Korea.

The authors studied the mental health status of the 1989 freshmen of Yeungnam University using the psychotic scale of Derogatis SCL-90, Zung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and MMPI from January 1988 to February 1988.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ntained 3792 students(1206 female, 2586 male).

392 students(10.3%), out of all respondents were screened to fall on high score ranges. The authors performed a second test to 156(39.8% 47 female(30.1%), 109 male(69.9%)) of the high-scored in oder to clarify their mental health status and analyze various psychosocial factors ; using MMPI. The MMPI results were categorized with Lachar's classific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By the MMPI scores, 24 respondents(15.4%) had neurotic trends, 20(12.8%) had psychotic trends and 7(4.5%) had trends of behavior disorder. It was about 1.4% of all 3792 freshmen.

2. On the close examination of the MMPI, 8 respondents were diagnosed for affect disorder, 6 for anxiety disorder, 9 for schizophrenia and 3 for personality disorder. It was 0.7% of all freshmen.

3. On the analysis of the psychosocial factors, the schizophrenic scores were high in the case of unsatisfy infamily atmosphere, unsatisfy in marital intimacy of parents, serious in conflicts between father and I, and serious in conflicts between mother and I.

4. The hypochondriacal scores were high in the case of weak in physical condition, having hospitalization experience and physical illness.